

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2023. 10. 25.(수) 13:00

시정질문 답변자료



구 미 시

시 정 질 문 요 지

질문 의원	질 문 요 지	답변자	비고
김재우	1. 임은동 화물차고지 조성 철회의 이유에 대한 시장님과 도시건설국장(남병국)의 각 의견	도시건설국장 시 장	P.1 P.2
	2. 취수원 상생협정 파기가 대구시에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며, 재협의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? 경상북도청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실 때 취수원 관련하여 관여는 어디까지 하셨는가?	시 장	P.3 P.4
	3. 구미시 산하기관 및 각종단체 임명에 관한 건 - 구미시 산하기관 중 문화재단·도시공사 등 대표 및 이사 선임에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선임하였는가? - 시장 취임 이후 산하기관 및 각종단체 대표, 위원회에 시장 선거에 함께 한 사람은 몇 명이며 어디에 있는지?	”	P.5 P.7
	4. 신공항 이전에 관한 사항 - 활주로 방향은 언제 알았는가? - 소음 피해에 대한 건 언제 알았으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상 정도 - 구미시가 항공물류허브 도시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? - 신공항 관련 업무 수행 시 구미시장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?	”	P.8 P.9 P.10 P.11

질문

1. 임은동 화물차고지 조성 철회의 이유에 대한
시장님과 도시건설국장(남병국)의 각 의견

【도시건설국장 답변】

□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

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
김재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
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

- 2021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입지선정 당시,
접근성, 경제성, 편의성 및 전문가, 화물운수업계 관계자
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고
- 임은동은 운수종사자 수, 시설이용 효율성,
부지확보 가능성, 법률적 제약성 등에서
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
- 그러나, 소음, 매연, 통행안전 위협 등을 우려한
지역주민들의 공영차고지 조성 반대의견이 완강하고,
지역 주요 단체장 및 주민과의 여러 차례 회의에도
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해당 부서의 보고 등을
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

【구미시장 답변】

-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
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우 의원님께
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.
- 「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」는
물류의 원활한 운송을 통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,
주택가 불법 밤샘주차 해소에 따른 시민정주여건 개선,
화물운송 종사자 편의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.
- 2014년부터
오태동 일원에 공영차고지 조성이 추진되었으나,
토지매입 협의 무산 등으로 2020년 사업이 취소되었고,
- 2021년에 임은동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대상으로
사업을 재추진 하였으나,
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추진동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며,
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부서의견에 따라
최종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.
- 현재, 시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
「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 용역」을 추진 중이며,
대상지역 주민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질문

2-1. 취수원 상생협정 파기가 대구시에 있다고 하는데
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며,
재협의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?

- 구미 시민과 대구 시민,
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어야 한다는 데는
전적으로 동의합니다.
- 그리고,
구미시가 해당 협정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
드립니다.
2022년 8월 17일, 대구시에서 사전 논의나 협의 없이
일방적으로 ‘협정 해지’를 공문으로 구미시에 통보하였습니다.
- 협정 체결 당시 저는 구미시장 후보로서,
‘취수원 이전 당사자인 시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
않은 것’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.
선거를 불과 두 달 남짓 앞두고 협정을 진행하였고
장소도 구미시나 대구시가 아닌 세종시에서 체결한 것은
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.
- 구미시장인 지금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되어야
한다는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.

질문

2-2. 경상북도청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실 때
취수원 관련하여 관여는 어디까지 하셨는가?

- 저는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 할 당시
취수원 관련 업무를 한 차례도 담당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취수원 협정은 2022년 4월 4일에 이루어졌고,
저는 2021년 11월 30일에 경북도 공무원을 퇴직했습니다.
-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해당업무에
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.

질문

3-1. 구미시 산하기관 중 문화재단·도시공사 등 대표
및 이사 선임에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선임
하였는가?

-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
전문성뿐만 아니라 혁신성, 리더십, 지역사회 이해도 등
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필요합니다.
-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경우,
지역에서 20여년 간 예술 활동을 이어오셨습니다.
뿐만 아니라, 한국정수문화예술원 부이사장,
한국예총 구미지회장을 오랜 기간 역임하는 등
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
- 구미도시공사 사장은
41년의 공직생활과 경상북도 근무, 영천시·경주시 부시장,
공공기관인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장 등
폭넓은 행정 경험으로 조직 관리능력의 전문성을
고루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
- 문화재단은 특정분야 또는 전문예술인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,
전 시민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문화복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
역할을 하고,

- 구미도시공사는
단순히 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목적이었던 공단과 달리
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
변경되었습니다.
- 두 조직은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흡수하고
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
다양한 계층을 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.
- 문화재단의 경우
문화예술 전문가, 지역 대학교수, 청년, 여성 등을 포함하였고
- 구미도시공사는
기업가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.

질문

3-2. 시장 취임 이후 산하기관 및 각종단체 대표, 위원회에 시장 선거에 함께 한 사람은 몇 명이며 어디에 있는지?

- 구미시의 산하기관은
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구미도시공사, 구미장학재단,
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4개이며,
- 이 중 제가 취임한 이후 변경된 기관장은
구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뿐입니다.
이마저도 전임 기관장의 임기만료 이후에 임명되었습니다.
- 다음, 각종 단체장이 변경된 경우는
각 단체별 규정 및 임기에 따라
선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.

질문	4-1. 활주로 방향은 언제 알았는가 ?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- 대구·경북 신공항은 2020년 7월 30일에
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에 대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,
대구광역시에서 2020년 11월 6일,
「대구·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.
- 이후 2022년 8월 18일,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발표 시
이전부지 위치가 결정되고,
활주로 위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었으나
소음관련 부분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
- 그리고 당시 의성·군위만을 대상으로
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
- 기본계획 내용에도 활주로 방향은
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
향후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.

질문

4-2. 소음피해에 대한 건 언제 알았으며 어떤 피해가 발생될 지 예상 정도 ?

- 소음 관련 사항은 2023년 8월 11일, 대구시의 ‘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’이 공람된 후, 국방부와 함께 9월 18일 주민설명회를 연 시점에 공개되었습니다.
- 구미시의 경우, 해평지역이 70~75 웨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나, 현재 군소음 보상법으로는 80~85웨클이 되어야 보상이 되는데 구미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한편, 활주로 경계로부터 11km 정도 거리에 국가 5산단이 위치하나, 공항이전으로 인한 소음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소음체감을 위해 시에서는 최근 해평 주민대표들과 대구공항으로부터 9km 지점 등 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을 방문했고, 저도 다녀왔습니다.

질문

4-3. 구미시가 항공물류허브 도시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?

- 구미시는 신공항이 구미 인근에 들어오는 것은 41만 구미시민 전체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. 따라서, 구미가 ‘공항배후 중심도시’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.
- 그래서 공항경제권 광역 인프라와 배후 신도시 기반 조성 등 우리에게 맞는 역할에 매진하겠습니다.
- 공항배후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, 최근 시설공단을 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.
- 이는 모두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, 뜻을 함께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

질문

4-4. 신공항 관련 업무 수행시 구미시장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?

- 신공항과 관련하여
군공항 이전은 대구광역시와 국방부가 추진하고
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을 하며,
신공항이 들어서는 곳은 의성과 군위지역입니다.
- 구미는 10km 떨어져 있는 배후도시로서,
신공항 경제권의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
구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.
- 이를 통해 의성도 살고, 군위도 살고, 구미도 사는
공항경제권 도시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
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.
- 따라서,
신공항과 연계한 공항배후 신도시, 광역교통망 등
신공항 배후 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
구미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.
-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,
이상으로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